

2018년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국가의 연구비로 부실 학술대회 참가 및 부실 학술지에 투고한 것에 대해서 뉴스타파의 보도로 밝혀졌고, 이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관단위의 관련 프로세스 정립 및 연구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사례연구로 알려드립니다.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수립 사례

오정훈 _ 한국원자력연구원

2018년 7월 19일 한국탐사저널리츠센터-뉴스타파에서 「‘가짜 학문’ 제조공장의 비밀」이란 제목의 보도로 촉발된 부실학회에 대한 문제는 이후 많은 조사와 함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실하거나 악랄적인 학술지와 학술대회가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건전한 학술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에서 2018년 10월에 배포한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및 ‘부실학회 관련 제재조치 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추가 설명이나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필자가 추가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부실학술활동: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의 발표가 채택되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하며, 학문의 발전보다는 참가비 수입 등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부실하거나 악랄적인 학술지, 학술대회를 말한다. 이하 자료에서는 ‘부실학술지’, ‘부실학술대회(학회)’로 표현한다.

1. 부실 학술지의 특징

- (출판)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과정이 생략된다.
 - 동일 논문이 반복해서 출판되거나 타 학술지 논문이 출판된다.
 -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기간)이 매우 짧다(1개월 이내).
- (양식) 논문 제출 양식(format)이 조악하다.
-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 (비용)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청구된다.
- (광고)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을 독려한다.
- (단체명) 학술지 명칭에 World, International, Global과 같은 형용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학회위치) 학회 사무국이 선진국(미국, 유럽, 호주 등) 도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 (영향력지수) 홈페이지에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F)가 높다고 언급한다.
- (주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외에 일반 주소가 없다.

※ 참고: Mohammad Hemmat Esfe et al (2015), Fake Journals: Their Features and Some Viable Ways to Distinguishing Them, Sci Eng Ethics (2015) 21:821-824

2. 부실 학술대회의 특징

- (이메일 계정) gmail, hotmail 등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을 사용한다.
- (참석)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학회참여증서를 준다고 선전한다.
-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 (운영위원) 학회 운영위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 ※ 무단으로 저명한 연구자를 운영위원으로 내세워 다른 연구자들을 현혹한다.
- (학회날짜) 초록 마감일, 논문 제출일, 학회일 등이 자주 변경된다.
- (현혹) 무료 숙박 · 숙식 · 항공권 등으로 선전하여 연구자를 현혹한다.
- (학회장소)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 (지불방식) 일반적인 학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학회비를 지불하는 반면 부실 학회는 현금 송금을 요구한다.
- (명성이용) 해당학회를 유명 출판사에서 주최한다고 광고한다.
- (학회프로그램) 학회운영 프로그램이 애매하고 토론자나 강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 (초청방식) 일반학회는 연구논문에 대해(e.g. call for papers) 모집하지만 부실학회는 연구자에게 직접 초대 이메일을 보낸다(e.g. You are invited).
 - ※ 해당 학회에서 발표하면 SCI급 저널에 게재된다고 광고한다.
- (참석증서) 참가비를 지급 후 학회날짜 전에 학회참석증서 발급한다.
- (강연자 초청옵션) 일반학회는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지만 부실학회는 일정금액을 내면 원하는 강연자를 초청해준다고 약속한다.
- (부실 테스트) AI 등으로 작성한 이상한 논문 초록을 시험 삼아 보내보고 그 논문 초록이 학회에 초청되면 부실학회이다.

※ 참고 : Amin Asadi et al (2018), Fake/Bogus Conferences: Their Features and Some Subtle Ways to Differentiate Them from Real Ones, Sci Eng Ethics (2018) 24:779-784.

3.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점검리스트

부실학술활동 문제와 관련하여 부실학회를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학술활동을 할 수 있는 학술지 및 학술단체에 대한 정확한 White List나 Black List는 없다. 이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공적 기관에서도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연구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 학회참석 및 논문투고 시 점검사항을 점검하고 학술활동을 하면 부실학술활동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가.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참고: <https://thinkcheckattend.org/>〉

○ 주최자 및 스폰서

- 이 학회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 학회 개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처음 개최되는 학회는 아닙니까?
- 당신 또는 동료가 전에 이 학회에 참석했습니까?
- 연사로 참석한다면 어떤 수수료(회의비, 등록비 등)가 발생 또는 면제될 것인지 분명합니까?
- 스폰서가 학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특히 공학 및 생명, 의학 연구와 같이 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경우, 그 후원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 학회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학회 날짜,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 정보)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 전에 이 학회 프로시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의제 및 편집위원회

- 학회 일정과 의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습니까?
- 학회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분야와 주요 연구 관심사에 부합합니까?
- 학회의 기존 연설자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 편집위원 리스트가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 안내된 편집위원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편집위원회는 프리젠테이션 편집권과 Peer Review 방식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 학회 진행

- 조직위원회는 프로시딩이 어디에 게재될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 출판된 프로시딩 논문에 대해 색인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평가를 위해 어느 인덱서에게 프로시딩을 제출할 예정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 프로시딩의 출판사는 COPE, DOAJ, OASPA처럼 잘 알려진 주요 단체 멤버입니까?

나. 논문 투고 시 점검사항

〈참고: <https://thinkchecksubmit.org/>〉

- 당신 또는 귀하의 동료가 학술지를 알고 있습니까?
- 이전에 학술지에 있는 Article을 읽었습니까?
- 최신 학술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 게시자를 쉽게 식별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까?
- 게시자 이름이 학술지 웹 사이트에 명확하게 표시됩니까?
- 전화, 전자 메일 및 게시물로 게시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 학술지의 Peer Review 방식이 명확합니까?
- 기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색인이 붙어 있습니까?
- 어떤 수수료가 청구될 것인가?
- 학술지 사이트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기와 청구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까?
- 편집부를 알고 있습니까?
- 안내된 편집 위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편집 위원이 자신의 웹 사이트에 학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 게시자는 잘 알려진 주요 단체 멤버입니까?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이면,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목록에 있습니까?
-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이면, 출판사가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에 속합니까?
- 학술지가 INASP의 Journals Online (AJOL, 아프리카 학술지)에서 호스팅됩니까?
- 출판사는 다른 단체의 회원입니까?

이외에도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논문투고 및 출판윤리 전반에 대한 국제 표준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겠다.

4. 기관에서의 학술활동 관리체계 가이드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점검리스트’가 연구자의 몫이라면 기관에서는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부실학술활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기관에서 권장학회(저널) 리스트를 통한 참가(투고)전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장학회(저널) 리스트를 제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내 연구자 및 연구그룹별 연간 참여 예정학회를 사전에 접수(White List)받아 우수학회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이 국내외 우수학회(저널) 관리를 권장하고 있다.

- (저널) 투고대상으로 해외, 국내에서 공인된 저널로 한정
 - ※ (해외) SCI(E), ESCI, SCOPUS, (국내) KCI 등재/후보저널
- 권장학회(저널) 리스트 DB 구축 및 관련 지침(기준) 등 개정 추진
- 주요 참여 학회(저널)와 신생 학회(저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물론 기관에서는 국내외 우수학회(저널) 관리체계를 통하여 부실학술활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정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권장 학술지 리스트(White List) DB 구축

현재 해외 및 국내에서 공인된 학술지(전자출판 포함)를 바탕으로 학술지 DB를 구축하고, 기관 내부의 연구자들에게 검토를 받고, 누락되었거나 신규인 학술지에 대해서는 추가 학술지를 추천 받아 포함하는 형식으로 DB를 완성한다.

또한 부실 학술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발표된 목록들을 검토하여 부실학술지(Black List)로 표시하여 학술지 DB에 같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새롭게 발견되거나 발간되는 학술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 학술지 목록: SCI(E), ESCI, SCOPUS, Ulrich’s list, PubMed, ERIC, Inspec 등
- 국내 학술지 목록: KCI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목록
- 부실 학술지 목록: Beall’s List, Stop Predatory Journals 등

나. 권장 학술대회 리스트(White List) DB 구축

국내외 학회(학술단체, 국제기구, 기관 등 포함)에서 주관하는 학술활동(Conference, Symposium, Seminar, Meeting, Workshop, Congress, Forum 등)을 학술대회라 할 수 있다. 학술대회명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회차만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학술대회가 새로운 명칭으로 개최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술대회명으로 권장 학술대회를 관리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권장 학술대회 리스트 DB 구축은 학술대회 개최를 주관하는 주최기관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기를 권장한다. 주최기관은 학회, 학술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대학포함), 일반기관, 출판사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실 학술대회에 대해서도 그동안 발표된 목록들을 검토하여 부실학술대회 주최기관(Black List)으로 표시하여 학술대회 DB에 같이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새롭게 발견되거나 발간되는 학술대회 주최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 학술대회 주최기관: 기관내 연구자들에게 추천을 받아 학술대회 주최기관 DB를 구축하고, 학술대회 발표시 권장학술대회 주최기관 리스트에 없는 기관의 학술대회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
- 국내 학술대회 주최기관: 기관내 연구자 추천 및 KCI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가지고 있는 학회를 기본으로 DB 구축
- 부실 학술대회 주최기관: Beall's List, Stop Predatory Journals 등

다. 국가 차원 부실학술활동 예방 DB 구축

지금은 각 기관에서 부실학술활동을 예방하는 슬기로운 대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R&D를 관장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나 과학기술유통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이와같은 부실학술활동 예방 DB를 구축하여 연구자나 관련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5. 부실학술활동 예방 관련 사이트

사이트 주소	주요 제공 내용
https://beallslist.weebly.com/	Beall이 작성한 부실 학술지 리스트(매주 갱신) ※ Beall의 Publisher list 중에 특정출판사가 다수의 학술지를 보유한 경우, 한 두 개가 약탈적 저널임에도 그 출판사가 펴내는 모든 저널이 약탈적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https://predatoryjournals.com  Stop Predatory Journals	논문심사 없이, 또는 허술한 심사를 통해 연구자들로부터 논문 게재료 이윤만 챙기는 “약탈적(Predatory) 출판사의 영리행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올리스트(Beall List)에 기초한 자격미달 학술지목록(블랙리스트)을 제공하는 비영리 웹사이트
http://thinkchecksubmit.org	연구자가 저널이나 출판사의 지명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체크 리스트 (Think/Check/Submit 캠페인)
https://thinkcheckattend.org	연구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와 기피해야 할 학회를 구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공 (Think/Check/Attend 캠페인)
https://libguides.caltech.edu/c.php?g=512665&p=3503029	Caltech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부실 학술단체와 컨퍼런스 관련 정보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79189.pdf	캐나다 캘거리대학에서 만든 부실 학술지 및 학술대회 회피 가이드북 (2018년 제작)
https://www.consumer.ftc.gov/blog/2016/08/academics-and-scientists-beware-predatory-journal-publishers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 성명서 - Academics and scientists: Beware of predatory journal publishers

<p>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od-18-011.html</p>	<p>미국 국립보건원(NIH) 성명서 - Statement on Article Publication Resulting from NIH Funded Research</p>
<p>http://www.icmje.org/icmje-recommendations.pdf</p>	<p>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p>
<p>https://doaj.org/bestpractice</p>	<p>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the joint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the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 and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p>

※참고: VÍT MACHÁČEK & MARTIN SRHOLEC (2017)

참고

1. Beall, J. (n.d.). Beall's List of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 Retrieved from. <http://beallslist.weebly.com/>
2. BIC STAR Library, 부실학회 및 학술지. <https://starlibrary.org/careful-journal>
3. Eaton, S. E. (2018). Avoiding Predatory Journals and Questionable Conferences: A Resource Guide. Calgary, Canada: University of Calgary. <http://hdl.handle.net/1880/106227>

4. ThinkCheckSubmit.org. (n.d.). Choose the right journal for your research.
<http://thinkchecksubmit.org/>
5. 김해도, 부실학술활동: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newsletter, No.99, 대한의학회, 2018.
http://kams.or.kr/webzine/18vol99/index.php?main_num=2
6. 한국과학기술원, 부실학회 & 학술지
<https://library.kaist.ac.kr/libService/prdtryCnfrncJrnl.do>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생태계 조성, KISTI
 ISSUE BRIEF, 제1호, 2018.
<https://kisti.re.kr/promote/post/issuebrief/4170?t=1549522666236>
8. 한국연구재단,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요약), 2018.9.
https://www.nrf.re.kr/cms/board/general/view?menu_no=53&nts_no=108850
9. 한국연구재단,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2018.9.
https://www.nrf.re.kr/cms/board/general/view?menu_no=53&nts_no=108850
10. 한국연구재단,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18.10.1.
https://www.nrf.re.kr/cms/board/general/view?menu_no=53&nts_no=108850
11. 한국연구재단, 부실학회 관련 제재조치 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안),
 2018.10.2.
12.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가짜 학문' 제조공장의 비밀.
<https://newstapa.org/43812>